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6.4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스페인, 바르셀로나 차량 테러범 중형 선고

- 5.27 법원은 바르셀로나 관광명소인 람블라스 거리에서 차량 돌진 테러('17.8.17, 사망 16·부상 140)를 자행한 이슬람 극단주의자 3명에게 징역 53년 6월 등 중형을 선고
- * 同人들은 유명 건축물인 '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'에도 폭탄 테러를 모의

○ 오스트리아, '국가 이슬람 지도' 발표에 비판 여론 확산

- 5.27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슬람 사원 등 관련 단체 600여개소를 표시한 '국가 이슬람 지도'를 발표하자, 야당과 무슬림 단체는 "무슬림을 잠재적 위험 요소로 낙인찍는다"며 비판
- * 「라프」 통합부 장관은 "종교가 아니라 정치적인 사상에 대항하려 했다"고 해명

○ 프랑스, 감시대상 이슬람 극단주의자 경찰 공격

- 5.29 프랑스 서부 라샤펠쉬르에르드르 경찰서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감시명단에 등재된 40대 정신질환 남성이 경찰을 흉기로 찌르고 총기를 탈취하여 도주하다 사살
- * 최근 프랑스에서는 랑부예(4.23)와 아비뇽(5.5) 등지에서 경찰관 대상 공격 발생

미주

○ 美 수사당국, 대형마트 총기 테러 사전 차단

- 5.31 FBI 등은 텍사스주 월마트에서 총기 난사를 계획한 20대 남성을 체포(5.28)해 테러를 사전 차단했으며, 자택에서 총기·탄약·극단주의 서적·깃발 등을 압수했다고 발표
- * 과거 텍사스주 월마트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해 22명이 사망('19.8월)

아 · 태평양

○ 문체부, 혐오 발언 금지 조항 신설 추진

- 5.26 문체부는 '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'('21~'24)을 통해, 특정 문화·인종·국가와 관련된 차별·편견이 조장되지 않도록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上 혐오 발언 등 금지 조항 신설을 추진
 - * 同 계획은 △문화 다양성 보호 및 확대 △소수자의 문화 참여와 접근성 보장 △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 기반 형성 등 3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

○ 한국원자력研, 불법드론 대응 통합시스템 개발 착수

- 5.31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전·공항 등 국가중요시설 드론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, 공공기관·민간업체들과 공동으로 '25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
 - * 불법드론 탐지·식별·분석·무력화·사고조사까지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개발

○ 경찰, 총기 부품 밀수 후 국내서 조립·판매 일당 검거

- 6.1 부산경찰청은 美 사이트에서 구매한 총기 부품을 자동차·장난감 부품 등으로 거짓 신고해 국내로 밀수입한 후, 이를 조립하여 판매한 일당 7명(구속 1, 불구속 6)을 검거했다고 발표
 - * 격발실험 결과 실제 총기와 동일한 기능을 갖춘 것으로 확인

아프리카

○ 나이지리아, 이슬람학교 학생 150여명 피랍

- 5.30 나이지리아 경찰은 니제르주 소재 '살리후 탄코 이슬람학교'에 무장괴한 20여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침입해 총기를 난사하고 전교생의 절반가량인 150여명을 납치했다고 발표
 - * 보코하람 등은 납치 몸값으로 10년간 약1,800만달러를 받는 등 산업 수준으로 변모

호주 멜버른 ISIS 추종자 인질 테러

- '17.6.5 호주 제2의 도시 멜버른 교외 브라이튼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ISIS 추종 남성 1명이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하다 사살되어 범인 포함 2명이 사망하고 경찰 3명이 부상



* 인질로 잡혀있던 여성은 무사했으며, 아파트 로비에서 총상으로 숨진 남성 발견

- 범인 「야크쿱 카이레」 (29세)는 '09년 호주군을 노린 뉴사우스웨일즈주의 테러기도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
 - 인질극 과정에서 “이것은 ISIS와 알카에다를 위한 일”이라고 언급
- ISIS는 “ISIS와 싸우고 있는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 호주가 합류하고 있어서 이번 인질극을 벌였다”고 주장하며 배후를 자처
 - 「말콤 턴블」 호주 총리는 ‘충격적이고 비열한 테러 행위’라고 강력 비난

< ISIS(이라크·시리아 이슬람국가) >

- (목 표) 시리아·이라크 등 중동 전역을 통괄하는 원리주의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('04.4 결성)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04.10), 미국('04.12), 캐나다('12.8)
- (조직규모) 약 14,000~18,000명 추정('19.8, 美 국방부) * 전성기 최대 약 7만명
- (연계세력) ISIS-호라산·西아프리카·시나이 지부 등 20여개
- (활동지역) 이라크 서북부 및 시리아 동부 지역
- (활동수법) '19.3월 시리아내 점령지 상실 이후, 게릴라식 테러를 지속 중인 가운데 선전매체 등을 통해 테러 선동
- (주요테러) ① '15.11 프랑스 파리 공연장·축구장 등 동시다발테러(사망 130, 부상 350)
 ② '17.12 이집트 수피교 사원 폭탄·총격테러(사망 305, 부상 128)
 ③ '19.4 스리랑카에서 ISIS추종단체의 연쇄테러(사망 259, 부상 500)

